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장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메르스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온다

그때 이슬성신외에는 어떠한 악도 듣지 않는다

전국이 메르스에 대한 공포로 얼어붙었다. 유커를 비롯한 많은 외국 관광객이 오지 않고, 중국인을 가득 태운 크루즈 선박도 우리나라를 피해서 일본으로 간다고 한다. 메르스 공포로 소비가 얼어붙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다보니 이거 정말 큰일이라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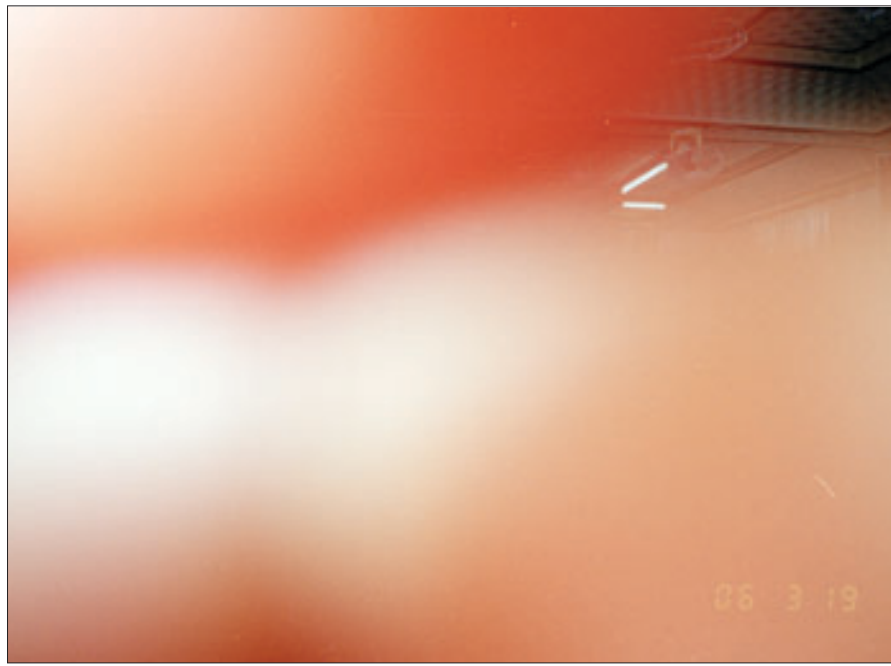
보건당국자들은 중동에서 발생한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잠복기가 더 길어지고, 치사율은 낮아지는 등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우려하고 있다.

인간은 생명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에 당연히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일전에 에볼라가 발병하여 맹위를 떨칠 때 에볼라보다 피어블라가 더 무섭다고 하였다. 피어블라는 공포를 뜻하는 피어(FEAR)를 에볼라 앞에 붙여서 에볼라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이에 비추어 피어르스(메르스에 공포를 뜻하는 피어를 붙인 조어)가 더 큰 문제라는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세에 나타난다는 괴질

어쨌든 메르스 사태를 보고 종교인들 중 많은 사람이 혹시 이게 말세에 나타난다는 괴질이 아닌가 의문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여러 선지자들이 말세가 되면 괴질이 나온다고 예언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강증산 선생은 “괴질은 한국에서 처음 발병하는데 병검이 광주, 나주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가 어육지경(魚肉之境)이요, 군산에서 시발하면 전라북도도 어육지경이요, 인천에서 시발하면은 세계가 어육지경이 된다(道典7:41)”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사진 전체가 이슬성신으로 뒤덮였다. 이슬성신을 받으면 괴질을 물리칠 수 있다. 구세주께서 보령하신 후 2006. 3.19 촬영되었다.

또한 조희성 구세주께서도 “이제는 걸어가다가 그냥 퍽퍽 쓰러져서 죽는 시대가 온다. 조금 있으면 마귀가 전멸되는 것을 알고 마귀가 한 생명이라도 삼켜버리고 같이 죽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는다. '십 리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는 때가 온다'고 격암유록에 써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인다고 그랬다. 격암유록에는 세밀하게 써어 있다. 피가 시커멓게 되면서 응고가 되어 굳어버리니까 심장비대로 떨어져 죽는다. 그런 시대가 꼭 오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나타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2000.10.24. 말씀)”라고 하셨다.

삼년 흉년 2년 괴질

위로 토하고 아래로 설사하는 병과,

피가 굳어져서 까맣게 타서 죽는 이름 모를 천질(天疾)로서, 아침에는 살아 있으나 저녁에 죽음으로 열 집에 한 집만 살아남겠구나(격암유록 가사총론歌辭總論).

무서운 예언이다. 얼마나 많이 죽는지 열 가구 중 한 가구만 살아남는다고 예언되어 있다.

박멸소탕 기도로 괴질 범접 못해

이렇게 무서운 괴질이 들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가. 격암유록에는 구세주(정도령)가 창안한 마귀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예언하고 있다. 마귀 죽이는 기도, 즉 멸마경(滅魔經)을 외우면 괴질이 없어진다는 예언이다.

當服海龍常誦咒羅 萬鬼皆消滅(구세주 담복염마상송주 만귀개소해인)

인류의 어머니 구세주(정도령)님께 북중하고, 정도령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는 마귀마음'을 없애주는 기도를 항상 하면서, 해인(海印)을 받아먹어야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예언이다.

구세주께서 창안하신 기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니 격암유록 예언서의 정확성에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괴질이 오더라도 멸마경(滅魔經)을 외우면 퇴치가 된다. 절대 박멸소탕 기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박멸소탕 기도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다. 구세주께서 마귀 죽이는 영력(靈力)을 불어넣은 기도이다. 사람이 이 기도를 외울 때 구세주 분신이 오셔서 마귀를 죽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언제 마귀가 괴질을 일으킬지 모른다. 방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자*

김중천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61)

“순교자(殉教者)가 되어라”

순교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부활자이므로 순교자가 완전히 마귀를 이긴 이긴자라는 사실을 초창기부터 말씀을 하였다. 나라의 의식을 영적으로 죽어야 순교자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죽이는가? 하나님을 위해서다. 순교자가 되어야 구원이다. 나라의

의식을 죽어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지 나라의 것이 살아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 아름다운 행동도 소용이 없다. 내가 살아 있으면 꼭 지옥에 가야 마는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들 모두 노력해서 순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62)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천당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 고로 이 말씀을 환원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천당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줄 알고, 내가 천당에 들어갈 줄 알고 믿었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죽어야 할 사망의 영인 고로, 하루 속히 나라의 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점령하여, 하나님의 신이 내가 되었을 때에 하느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지 하나님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없고 영원무궁토록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도의 길

이기는 생활과 인내력



구세주께서 보광하신 지 벌써 11주년이 되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일부 신도들은 기성교인들처럼 그날이 그날인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형식적으로 매일 예배에만 참석하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과연 영생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영생을 향한 신앙은 이기는 생활을 수반한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서는 영생은 불가능하다는 게 구세주의 말씀이다. 아직도 구세주가 인도하는 대로 매일 예배에 참석하거만 하면 구

원이라는 미몽(迷夢)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자신을 이기지 않고서는 영생의 고지에 도달할 수 없다.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어려서부터 이기는 생활을 하셨다. 초등학교 시절 일제의 수탈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나무를 해서 장에 갖다 파셨다고 한다. 당시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 선생께서는 어저보다 조금이라도 더 해야 나무를 그만하고 산에서 내려왔지 결코 비슷하거나 적게 해서 내려오지 않으셨다고 한다.

이처럼 이기는 생활이란 자신의 한계를 뚫고 올라가는 삶을 말한다. 이게 말이 쉽지만 실천하는 데에는 엄청난 인내력을 요구한다. 이기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참고 견딜 수 없게 되면 다른 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고 구세주는

말씀 하셨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에도 참고 견디라. 그러하면 구세주께서 대신 이겨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사실 일 초 일 초 이기는 생활은 구세주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범인(凡人)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래서 구세주께서는 50%만 이기라고 말씀하셨다. 50%만 이기면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이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기는 생활을 해야만 변화를 입을 수 있다. 50%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기필코 올하는 그 목표를 달성해보자.*

이일자 총재 부산제단 초청예배

일시: 7월 19일 (일) 오전 10시

장소: 부산 승리제단

누구든지 내 몸처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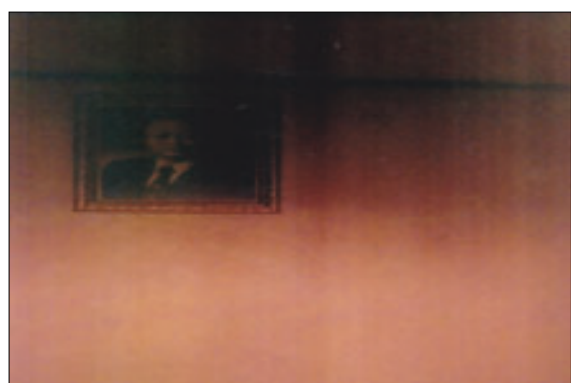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군산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박준구 장로 촬영



군산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박준구 장로 촬영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